

‘기세등등’ 키움·‘공수겸장’ LG “와라”...막으면 뚫는다



김선빈

KIA 주간 전망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상위권 추격의 고삐를 다시 당긴다. 18일 현재, KIA는 53승 53패 4무 (승률 0.500)로 kt·NC와 리그 공동 5위.

순위 싸움은 안갯속이다. 3위 롯데와는 2.5경기, 4위 SSG와 1.5경기, 8위 삼성과도 2.5경기 차다. 중위권 격차는 여전히 좁아졌다.

한 시리즈 결과에 따라 순위판이 요동칠 수 있다. 팀당 잔여 경기 수는 29~36경기. 가을야구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다. 한 경기 승패의 무게가 커졌다.

KIA의 과제는 뚜렷하다. 상위권 추격이다. 동시에 5위권 경쟁팀을 따돌려야 한다.

다만 흐름은 좋지 않다. 지난주 원정 6경기에서 3승 3패, 반타작에 그쳤다. 삼성전 3연승으로 올린 기세는 두산전 스윙패로 무너졌다. 3경기 모두 마무리 난조로 허무한 역전패. 총격의 추락 속에 덕아웃 공기는 무겁다.

2주 원정을 끝낸 KIA는 이번주 홈 6연전에서 반등을 노린다. 상대는 최하위 키움과 선두 LG, 극과 극의 두 팀이다.

먼저 19일부터 키움과 주중 3연전을 치른다. 순위는 쏠리지만 기세는 무섭다. 8월 성적은 8승 6패, 승률 0.571로 전체 3위. 승

가을 야구 ‘길목’ 안갯속 순위경쟁, 홈 6연전서 사실상 윤곽 무너진 뒷문에 추격 동력 ‘주춤’...이제 믿는 건 화끈한 화력 김선빈·위즈덤, 상위권 도약 ‘키맨’...막판 집중력 승부 관전

성문을 앞세운 타선이 화끈하다. 특히 홈보다 적지에서 강하다. 원정경기 타율 0.303, 리그 1위다.

KIA는 올리 양현종 김도현을 내세워 맞선다. 시즌 상대 전적은 6승 4패 2무, 우세하지만 장담은 어렵다. 6월 고척 3연전도 1승 1무 1패로 팽팽했다. 두산전 스윙패 후유증을 털려면 1차전이 불씨가 돼야 한다.

주말에는 1위 LG와 맞붙는다. 타율·득점·타점 1위, 팀 ERA 3위, 퀄리티스 타트 2위. 공수 균형이 리그 최강이다. 8월 성적도 10승 3패로 압도적이다. 상대 전적은 4승 7패로 KIA의 열세.

지난달 광주 3연전도 스윙을 당했다. 홈 이점에도 승부는 벅겁다. 약점이 없는 건 아니다. 도루 저지율이 9위다.

KIA는 빠른 발로 내야를 괴롭힐 필요가 있다.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최소한 주중 위닝시리즈가 필요하다. 그 기세를 주말까지 이어가야 한다.

목표는 6경기 최소 4승. 반면 연패에 빠지면 도미노처럼 흔들릴 수 있다. 문제는 불펜이다. 마무리 정해영이 1군에서 빠지며 공백이 크

다. 전상현, 조상우 등이 뒷문을 감당해야 한다. 배터리간 유기적인 호흡도 중요하다.

다행히 타선은 살아났다. 지난주 팀 타율 0.279, 리그 3위. 그 중심에 김선빈이 있다. 5할 팬타로 공격을 이끌었다. 위즈덤도 홈런 3개로 힘을 보탤다.

방망이는 KIA의 가장 큰 무기다. 불펜 불안까지 덮을 카드다.

상위권 재도약의 열쇠는 이번 주 6연전에 있다. 안방 무대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3위 진입은 충분히 가시권이다. 관전은 매 경기 집중력이다. /주홍철 기자

●프로야구 팀별 순위 <18일 기준>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LG	68	43	2	0.613	0
2	한화	65	44	3	0.596	2
3	롯데	58	53	4	0.523	10
4	SSG	55	52	4	0.514	11
5	KIA	53	53	4	0.500	12.5
6	kt	55	55	4	0.500	12.5
7	NC	51	51	6	0.500	12.5
8	삼성	53	58	2	0.477	15
9	두산	49	59	5	0.454	17.5
10	키움	36	75	4	0.324	32



위즈덤

<KIA 타이거즈 제공>

하계U대회 빛낸 빛고를 영웅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광주시체육회, 노승석 광주시청 육상팀 코치·육상 ‘金’이재성 등 선수단 9명 격려

광주시체육회가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주 선수단에 포상금을 전달했다.

광주시체육회는 18일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노승석 광주시청 육상 지도자 및 종목별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노승석 지도자를 비롯해 신대철(유도), 고병진(다이빙) 지도자와 이재성(육상), 김민주(유도), 김지욱, 최강인, 손성환, 김승현(이상 다이빙)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

육상 이재성은 남자 400m 계주 결승에서 서민준·나마디조엘·김정윤과 한 조를 이뤄 38초50으로 한국 육상 계주 사상 첫 U대회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U대회 육상 금메달은 지난 2009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U대회 김덕현 이후 16년 만이다. 또 200m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메달은 지난 1985년 일본 고베 U대회 장재근 이후 40년 만의 값진 메달이다.

다이빙 김지욱은 남자 10m 경기와 혼성팀,



18일 열린 2025 하계U대회 우수 선수 포상금 수여식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싱크로나이즈드 3m에서 각각 3위를 차지해 동메달 3개를 획득했고, 최강인 손성환과 함께 단체인 은메달을 합작했다. 다이빙 김승현도 여자부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했고, 유도 김민주는 78kg급과 혼성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따내 광주선수단에 메달을 보탤다.

지난달 독일 라인루르에서 개최된 세계대학경기대회에 참가한 광주소속 선수단은 금1, 은1, 동7 등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선수단

이 4위(총 57개, 금21, 은9, 동7)를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소속 국가대표로서 개인은 물론 광주의 명예를 드높인 광주선수단에 감사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을 축하한다”며 “메달 색깔은 중요치 않다. 대학 시절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박희중 기자

헤이스 멀티골...5경기 만에 승전보

광주FC, 대전戰 2대0...6위 올라

광주FC가 대전에 유독 강했던 헤이스의 멀티골을 앞세워 5경기 만에 값진 승리를 챙겼다.

광주는 지난 17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26라운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홈경기에서 2-0으로 승리했다.

지난달 수원FC 원정(1대2), 김천 상무 홈경기(1-1), 전북 현대 홈경기(1-2), 포항 원정(0-1) 이후 오랜 만에 승점 3을 챙긴 광주(35점)는 울산 현대(승점 34)를 제치고 상위 스플릿 마지막 순위인 6위로 올라섰다.

올 시즌 대전을 상대로 강한 자신감을 보였던 광주가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다. 전반 5분 주세종이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며 역습 기회가 열렸다. 헤이스가 속도를 붙여 전진한 후 왼발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수비에 맞고 굴절됐다.

헤이스는 11분에도 번복였다.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공간이 열리자, 과감한 슈팅으로 간담을 서늘케 했다.

기다리던 선제골은 26분 나왔다. 미드필드에서 상대 패스를 가로챈 헤이스가 단독 돌파 후 강력한 왼발 슈팅을 골문 구석에 꽂아 넣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정호 감독은 정지훈을 불러들이고 하승운을 투입했다.

광주는 동점골을 위해 공격적인 전형으로 나선 대전에 맞서 변준수, 진시우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걸어잡으며 기회를 엿봤다.

후반 10분이 지나며 광주가 흐름을 찾았다. 최후방서부터 볼 점유율을 늘려가며 공수 양면에서 짜임새 있는 모습을 보였다.

주도권을 잡은 광주는 후반 16분 오후성, 유제호를 투입했다.

이정호 감독의 용병술은 곧바로 효과를 봤다. 오후성은 후반 19분 상대 왼쪽 측면을 허무



지난 17일 열린 대전과의 홈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헤이스가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광주Fc 제공>

는 움직임을 가져간 후 문전을 향해 낮고 빠른 컷백을 건넸고, 헤이스가 이를 왼발로 마무리하며 승리를 굳혔다. /박희중 기자

23일 트리플에스 지연·린...24일 몬스타엑스 형원

‘KIA 승리 기원 릴레이 시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오는 23-2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LG와의 홈경기에 연예인을 초청해 승리기원 릴레이 시구 이벤트를 개최한다.

23일은 걸그룹 트리플에스의 멤버 지연과 린이 각각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와 시타를 맡는다.

지연과 린은 “KIA의 시구를 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긴장이 되긴 하지만 뜻깊은 경험일 것 같고, 더운 날씨에 선수들 모두가 부상 없이 경기에서 승리하길 기원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24일은 몬스타엑스의 멤버 형원이 시구자로 마운드에 오른다.

광주 출신으로 타이거즈 전편인 형원은 “고



왼쪽부터 트리플에스 지연·린, 몬스타엑스 형원

향에서 시구를 하게 돼 정말 기쁘고 영광”이라며 “시구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구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선수단 모두가 부상 없이 ‘가을 야구’에 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홍철 기자

오늘부터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 본격 시행

KBO는 19일부터 KBO 리그 전 경기를 대상으로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을 시행한다.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은

지난달 22일 열린 2025년도 제5차 실행위원회를 통해서 시행이 결정된 바 있다.

판정 기준은 현재 퓨처스리그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게 한다. 타자가 투수의 투구를 타격하려는 의도로 배트를 휘두르는 동작(스윙)을 할 때, 그 여세로 인해 배트(배트 끝을 기준으로 판단)의 각도가 홈플레이트 앞면과 평행을 이루는 기준선보다 투수 방향으로 넘어갔을 때 심판은 스윙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 배트 끝의 각도가 타자석 기준 90도를 초과했을 때 스윙으로 판정하며, 이하인 경우는 스윙이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배트가 홈플레이트 앞면을 넘었는지 여부, 또는 손잡이 위치나 신체 회전 등은 판정 시 고려되지 않으며, 배트 끝의 각도가 기준선을 넘었는지 여부로 판정이 내려진다. 번트 시도는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다.

판독 기회는 기존 비디오 판독 기회와 별도로 팀당 2번이 부여되며, 반복 시 기회를 유지

한다. 연장전에서는 잔여 기회에 더해 판독 기회가 1회 추가되며, 반복 시 기회를 유지한다. 공격팀은 스윙 판정, 수비팀은 노스윙 판정을 받았을 시에만 판독 요청을 할 수 있다.

판독 요청은 감독이 해야하며 판정 후 30초 이내(경기, 이닝이 종료되는 아웃카운트의 경우 10초)에 요청해야 한다. 판독 요청 제한 시간 이내일지라도, 상황이 발생한 플레이의 다음 투구가 이루어진 이후의 비디오 판독 요청은 불가하다. 또한 3분안에 판정을 뒤집을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심이 유지된다.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의 결과로 주자 재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비디오 판독 규정의 주자 재배치 규정을 적용해 심판 팀장이 판독센터의 조언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KBO는 각 구장의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후반 경기에서 발생한 체크 스윙 사례들을 자체 분석하는 테스트 기간을 가져왔다. 또한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이 시즌 중 도입되는 신규 규정임을 감안해 시행 세칙을 각 구단 감독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구단과 선수단에 사전 공지했다. /주홍철 기자